

인성의 기초를 잡아주는 처음 인문학동화

•독후활동지•



공자 아저씨네 빵가게



주니어김영사

삶이 배움이고 배움이 삶인 어린이들을 위한 최고의 멘토 인성의 기초를 잡아주는 처음 인문학동화

〈인성의 기초를 잡아주는 처음 인문학동화〉 시리즈는 철학, 문학, 예술, 종교 등 인문학 분야를 대표하는 인물들이 어린이들의 이웃으로 나타나 고민을 함께 나누고 인문학적 지혜를 자연스럽게 일깨워 주는 동화이자 자기계발서입니다.



- 01 공자 아저씨네 빵가게
김선희 글 | 강경수 그림 | 황희경 도움글 | 160쪽 | 9,500원
- 02 마더 테레사 아줌마네 동물병원
김하은 글 | 권송이 그림 | 정민 도움글 | 164쪽 | 9,500원

- 03 축구 선수 소크라테스 근간
 - 04 톨스토이 헌책방 근간
 - 05 피카소 과일가게 근간
- * 〈처음 인문학동화〉 시리즈는 계속 출간됩니다.



인성의 기초를 잡아주는
처음 인문학동화 **독후활동지**
공자 아저씨네 빵가게



〈인성의 기초를 잡아주는 처음 인문학동화 독후활동지〉는 이렇게 구성돼요.

- I. 기초 인성 기르기 동화 내용의 이해
동화 각 장의 소재목이기도 한 공자의 덕목들을 점검해 보고, 동화 내용 속에는 그 덕목들이 어떻게 적용되었는지 적어 보면서 바른 인성을 키웁니다.
- II. 인성 다지기 이해와 비판
동화를 통해 익힌 인문학적 덕목들을 친구들과 토론해 보며 생각을 넓히고, 동화 속에서 느낀 점을 자신의 경험과 맞물려 표현하는 능력을 키웁니다.
- III. 인문학 인물 탐구 - 공자
책 속 부록의 내용을 바탕으로 공자의 삶과 사상을 이해하고, 나아가 공자의 사상이 현대 사회에 어떤 도움이 되는지 적어 보며 논리적 사고를 키웁니다.

부모님·선생님용 도움말



〈인성의 기초를 잡아주는 처음 인문학동화 독후활동지〉 인성 발달에 어떤 도움이 될까?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방법을 연구하는 학문이 인문학이라면, 인문학은 이제 막 인격이 형성되어 가는 어린이들에게 가장 필요한 학문일 것입니다. 인문학의 근본은 남을 이해하고 배려하는 마음, 바로 '바른 인성'을 키우는 것에 있으니까요.
〈인성의 기초를 잡아주는 처음 인문학동화 독후활동지〉를 한 문제 한 문제 풀어 가다 보면 어린이들이 살아가면서 맞닥뜨릴 많은 문제들을 스스로 판단하고 해결할 수 있는, 바른 인성을 바탕으로 한 생각의 힘을 기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비판적인 글쓰기 연습을 통해 자신을 올바르게 표현하는 방법을 익히는 데에도 도움이 됩니다.



교과연계 **〈3학년 2학기 국어〉** 3. 함께 사는 세상
원인과 결과가 드러나게 말하고, 알맞은 낱말을 사용하여 글을 쓸 수 있다.
〈4학년 1학기 국어〉 3. 이 생각 저 생각
서로 다른 의견을 비교하며 자신의 생각과 느낌을 이야기할 수 있다.
〈5학년 1학기 국어〉 6. 깊이 있는 생각
생각의 근거를 마련하는 방법을 익혀 찬성하거나 반대하는 글을 쓸 수 있다.
〈5학년 도덕〉 3. 갈등을 대화로 풀어 가는 삶
도덕적 갈등의 원인과 대화의 중요성을 알고 대화를 통해 갈등을 평화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
〈6학년 도덕〉 10. 참되고 숭고한 사랑
성인의 가르침을 통해 참된 사랑의 의미와 중요성을 이해하고 생활 속에서 실천할 수 있다.

1. 기초 인성 기르기 동화 내용의 이해

《공자 아저씨네 빵가게》 본문에는 각 장마다 어린이 여러분께 전하고자 하는 공자의 교훈을
소재목으로도 적어 두었어요. 동화 내용을 다시 한 번 떠올려 보며 각 장의 교훈과 관련된 아래
질문들에 대해 보세요. 적는 동안 자연스럽게 어린이 여러분들 마음속에도 인문학적 바른 인성이 차곡차곡 쌓일 거예요.

○ 교과연계 ○
〈3학년 2학기 국어〉
3. 함께 사는 세상

1장 - 덕이 있는 사람은 외롭지 않다

빵집 아저씨는 환희와의 첫 만남에서 ‘덕이 있는 사람은 외롭지 않다.’고 말했습니
다. 무슨 뜻으로 한 말일까요?



2장 - 배우고 때때로 익히면 즐겁지 아니한가

빵집 아저씨는 남에게 보이기 위한 공부가 아니라 자기를 발전시키는 공부, 모르
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해 주는 공부, 즐기면서 하는 공부를 해야 한다고 말했
습니다. 이후 공부를 대하는 환희의 자세가 어떻게 달라졌나요?


○ 교과연계 ○
〈3학년 2학기 국어〉
3. 함께 사는 세상

3장 - 인이란 사람을 사랑하는 것


빵집 아저씨는 왜 가족 간의 사랑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다고 했나요?

4장 - 멀리서 친구가 찾아오니 기쁘지 아니한가


환희는 어떤 이유로 진섭이와 화해하고 다시 친하게 지내기로 했나요?

 5장 - 어려운 상황에서 사람의 진가가 드러난다

빵집 아저씨와 등산을 다녀온 뒤 환희는 가족을 위해 라면도 끓이고 청소도 합니다. 환희의 행동이 갑자기 달라진 이유는 무엇일까요?

 6장 - 효란 부모님에 대한 공경심을 갖는 것

할머니가 돌아가신 뒤 환희의 엄마가 오랫동안 슬퍼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7장 - 내가 하기 싫은 일은 남에게도 시키지 마라

환희와 세은이는 사귀기로 하면서 어떤 약속을 했나요?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II. 인성 다지기 이해와 비판

앞에서 살펴본 동화 내용을 바탕으로 사고를 확장시켜 볼 거예요. 아래 문제들을 친구들과 함께 토론해 보세요. 나와는 다른 다양한 입장과 해결 방안이 있다는 걸 깨닫게 될 거예요. 또한 동화를 읽고 느낀 점을 자신의 경험과 연결하여 글로 써 보세요. 나를 더 잘 표현할 수 있는 좋은 연습이 될 거예요.

【친구들과 토론해 봐요】

1. 빵집 아저씨는 ‘진정한 배움이란 돈을 많이 벌고 높은 지위를 얻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발전시키기 위해 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에 동의하는지, 아니면 다른 의견이 있는지 토론해 보세요. 그리고 자신은 어떤 이유로 공부를 하는지도 말해 보세요.

동의해요

내 의견은 달라요



2. 만약 환희의 형이 환희의 엠피쓰리를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가져갔다면 그래도 형의 잘못을 지적하거나 탓하지 않고 관대하게 대해야 한다고 생각하나요? 나쁜 행동을 하고 잘못을 저지른 사람을 어디까지 관대하게 대해야 하는지 서로 의견을 나눠 보세요.

Ⅲ. 인문학 인물 탐구 - 공자


동화를 읽고 '공자 아버씨는 어떤 분일까?' 하는 궁금증이 생겼나요? 이제 부록 페이지에 소개된 공자 아버씨의 삶과 사상을 복습해 볼 거예요. 부록을 꼼꼼히 읽고 문제를 풀어 보세요. 그리고 2500년 전에 살았던 공자 아버씨의 사상이 우리가 살고 있는 현대 사회에는 어떤 도움이 될 수 있을지도 생각해 봐요.

교과연계
<6학년 도덕>
10. 참되고 숭고한 사랑

1. 공자의 가정환경은 어땠나요? 그리고 어린 시절 및 청년 시절은 어떻게 보냈는지 간단히 요약해 보세요.

2. 공자는 '사양자'에게 거문고를 배웁니다. 이 일화를 통해 공자의 성격과 됬됨이가 어떤지 추론해 보세요.


3. 공자의 사상 중에 대표적인 것이 '인'과 '효'입니다. 각각 어떤 개념인지 설명해 보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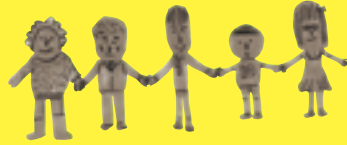


교과연계
<5학년 도덕>
3. 갈등을 대화로 풀어 가는 삶

4. 공자는 유교의 창시자로서 동양철학과 전통에 많은 영향을 미쳤습니다. 유교적 문화의 장점과 단점을 비교해 보세요.

5. 오늘날 우리 사회의 문제 중 하나는 가정의 해체와 고령화입니다. 이로 인해 피해를 입는 노년층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공자의 어떤 사상이 도움이 될지 판단해 보세요.





I. 기초 인성 기르기 동화 내용의 이해

1. 이 말은 덕이 있는 사람은 자연히 주변에 이웃이 생긴다는 뜻이다. 빵집 아저씨가 빵집을 차린 지 얼마 되지 않아 환희를 만나게 되어 반갑고 기쁘다는 뜻으로 한 말이다.
2. 집안이 망한 이후로 환희는 환경 탓, 주변 탓을 하면서 공부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 그 전에는 성적 때문에 공부를 했다. 그러나 빵집 아저씨를 만난 이후 주변 환경에 상관없이 공부 자체를 즐기면서 하게 되었다.
3. 아버지는 자식을 사랑하고 자식은 아버지를 존경하고 형제간에 사랑하면 가정이 화목해지고 가정이 화목해져야 비로소 나라가 안정되고 부강해지기 때문이다.
4. 빵집 아저씨의 말을 듣고 진섭이가 유익한 친구임을 깨달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자신의 마음이 좁았음을 뉘우쳤기 때문이다. 진섭이는 솔직하고 속이 넓어 배울 게 많다. 교묘한 말로 환희를 속이지도 않는 좋은 친구이다.
5. 빵집 아저씨에게 '바꿀 수 없는 건 환경, 바꿀 수 있는 건 생각'이라는 말을 듣고 당장 바꿀 수 없는 환경을 탓하며 불행해하기보다 자신의 생각을 바꿈으로써 행복해지기로 했기 때문이다. 그리고 겨울에도 잎이 시들지 않고 푸르게 달려 있는 소나무와 잣나무처럼 강한 마음으로 어려운 환경을 이겨내겠다는 다짐을 했기 때문이다.
6. 그동안 치매에 걸린 할머니에게 제대로 된 효도를 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할머니를 짐처럼 생각하고 미워하기도 하고 원망하기도 했는데, 막상 돌아가시고 나니 자식 된 도리를 다하지 못한 것 같아 후회하는 것이다.
7. 환희와 세은이는 서로 약속을 잘 지키고 거짓말을 하지 않기로 다짐했다. 각각 서로가 싫어하는 것을 말하고 그것을 하지 않기로 한 것이다.

II. 인성 다지기 이해와 비판

1. 우리는 여러 가지 이유로 공부를 한다. 부모님이 시켜서, 성적이 떨어지면 선생님께 혼이 나니까, 나중에 좋은 대학에 가기 위해, 원하는 직업을 얻기 위해서, 친구들에게 인기를 끌기

위해, 똑똑해지고 싶으니까 등 매우 다양한 이유가 있을 것이다. 이런 이유들을 공자가 말하는 배움의 목적과 견주어 보도록 한다.

공자(빵집 아저씨)가 말하는 자기 자신을 발전시키기 위한 배움이란 한 마디로 인격 수양을 위한 배움이다. 자신의 부족한 부분을 알고 채워 나감으로써 인격적으로 훌륭한 인간, 즉 군자가 되는 것이다. 공자의 주장은 인성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요즘 상황에서는 그 울림이 더욱 크다. 많은 사람들이 돈과 명예를 얻기 위해 공부를 한다. 그러다 보니 지적으로는 뛰어나지만 인성적으로는 덜 된 사람들이 많아졌다. 이에 공자가 말하는 배움의 의미를 다시 한 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그러나 한편, 실용적인 지식, 즉 돈을 많이 벌고 높은 지위를 얻는 데 도움이 되는 지식도 사회를 발전시키는 데 필요하다. 아무리 인격적으로 훌륭한 사람이 많다고 해도 사회가 발전하지 않으면 세계화 시대에 경쟁에서 뒤처질 수 있다. 그러므로 물리적인 조건이나 환경을 발달시키기 위해 공부를 할 수도 있다.

2. 이 문제의 의도는 법가의 입장에서 유교를 평가해 보는 것이다. 법가는 죄에 대해 엄격한 법을 적용하여 처벌하도록 한다. 그래야 그 사람이 법에 두려움을 느껴 다시 죄를 저지르지 않을 뿐더러 다른 사람들도 이를 본보기로 애초에 죄를 저지르지 않을 거라 판단했기 때문이다. 법가의 주장은 매우 일리가 있다. 잘못을 저질렀는데 별하지 않으면 당사자는 불법에 대해 무덤덤해질 것이고, 그걸 지켜보는 사람들은 부당함을 느낄 수 있다. 따라서 만약 형이 정말 엠피쓰리를 가져갔다면 무조건 용서하기보다는 형의 행동이 반복적인지, 더 나쁜 행동으로 커질 수 있는지 잘 따져 보아야 한다. 만약 그렇다면 형의 행동을 한없이 관대하게 대할 수만은 없을 것이다.
3. 그릇이 작은 사람은 속이 좁은 사람으로서 질투와 시기가 많고 자신만 위하는 이기적인 사람이다. 그래서 손해 보는 것을 못 참으며 다른 사람의 실수나 잘못에 매우 엄격하다. 반면 그릇이 큰 사람은 마음이 넓은 사람으로서 남의 처지를 잘 이해하고 잘못을 덮어 주며 불우한 환경에서도 굴하지 않고 자신을 발전시키는 동시에 남까지 위하는 사람이다. 그릇이 큰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역지사지의 자세와 근분을 깨닫고자 하는 마음가짐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평소 책도 많이 읽고 경험도 풍부하게 쌓아야 한다. 견문을 넓혀야 이해심도 커지고 우물 안 개구리에서 벗어나 자신을 돌아보며 반성할 수 있다. 이와 관련된 구체적인 예를 덧붙여 보도록 한다.
4. 제목을 한번 훑어보면서 글감을 찾아보도록 한다. 예를 들어 '멀리서 친구가 찾아오니 기쁘지 아니한가'라는 말과 관련지어 옛날에 같은 반이었던 친구를 만났는데, 오래 떨어져 있었

는데도 어제 만난 친구처럼 할 말도 많고 반갑고 기뻐던 경험을 쓸 수 있다. 아니면 '내가 하기 싫은 일은 남에게도 시키지 마라'라는 말과 관련지어서, 어리다고 귀찮은 일들을 시키는 형이나 부모님과 있었던 일, 내가 하기 싫은 일을 친구에게 떠넘겼던 일 등을 쓸 수 있다.

III. 인문학 인물 탐구 - 공자

1. 공자는 노나라에서 태어났다.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시고 가정 형편이 어려웠으나 예절 배우기를 좋아하였고 제사 지내는 놀이를 하였다. 17세에는 어머니마저 돌아가셔서 남의 집에서 일을 하며 살았다.
2. 공자의 진지한 성격과 하나를 배우더라도 그 뜻을 완전히 알 때까지 성실히 배우는 자세를 알 수 있다. 그리고 배우고 익히는 과정이 아무리 고단하고 지남하더라도 기쁜 마음으로 즐기면서 임하는 태도를 엿볼 수 있다.
3. '인'이란 간단히 말해 남을 사랑하는 것이다. 인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남을 위해 선을 베풀고, 이것이 어려우면 남에게 나쁜 짓을 하지 않아야 한다. '효'란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이다. 먹을 것만 잘 챙기는 봉양이 아니라 얼굴빛을 좋게 하여 부모님을 대하고 힘든 일을 대신 해드리고 부모님의 나이들을 알아 모시며 돌아가신 뒤에도 예절에 맞게 장례를 치르고 제사를 지내는 것을 말한다.
4. 유교 문화는 사람과 사람 사이의 예절을 지켜 사람됨의 도리를 다하고 사회에 질서와 권위를 잡아 줌으로써 안정되고 조화로운 공동체를 이루어나갈 수 있도록 해 준다는 장점이 있다. 반면, 개인의 자유로운 표현과 활동이 사회적 관습에 의해 억압될 수 있으며, 권위주의로 인해 민주적인 문화가 잘 자라지 못한다.
5. 가정의 해체와 고령화 사회에서 그 피해를 입는 노년층이 겪는 문제에는 여러 가지가 있다. 물질적인 궁핍이나 안전(건강)에 대한 위협, 정신적·심리적 박탈감과 소외감 등이다. 이 중 우리 사회는 물질적이고 육체적인 문제만을 해결하는 데, 즉 복지 혜택을 늘리는 데만 역량을 집중한다. 그러나 정작 노인들이 고통을 겪는 이유는 자신이 쓸모없는 인간이라고 느끼는 소외감이다. 이에 공자의 '효' 사상을 되살려 노인을 공경하는 마음을 갖고 그들을 공경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 구체적이고 현실적으로 고민해 보아야 한다. 노인을 봉양하는 것만이 아니라 노인들이 보여주는 삶의 지혜와 연륜을 인정하고 이를 우리 사회에 환원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는 동시에 다른 사회 구성원들은 노인에게 대해 공경심을 갖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고양이와 강아지, 사람이 되려고 철학 공부를 시작했다!

“냐옹~, 멍멍! 두 발로 걷고 말을 한다고 해서 우리가 진짜 사람이 된 건 아냐. 진짜 사람은 생각하고 그대로 실천할 줄 알아야 하거든. ‘보름달 학교’ 철학 수업에서 정답을 맞춰 사람이 되는 약을 꼭 받고 말 거야! 요루바, 철학 공부하러 가자!”

★ 2010년 대한민국 콘텐츠 어워드 특별상 수상작! ★
 청소년 베스트셀러 <철학통조림>의 아동판!



신간

어린이를 위한 철학통조림

만화 철학고양이 요루바

- ① 약속
- ② 이기주의 VS 이타주의
- ③ 천재가 되는 방법

김용규 원작 | 소공 글·그림 | 200쪽 내외 | 각권 9,500원



QR코드를 스마트폰으로 찍어 보시면, 깜찍한 요루바 동영상을 보실 수 있습니다.



‘한국 고전문학 읽기’는

초등학교 때부터 시작해야 할
인성 교육의 기초 학습 단계입니다!



- 고은 시인이 직접 고른 한국 고전문학 50선!
- 초·중 문학 교육 과정의 필독서!
- 전문가(서울대학교 국어국문학과 김유중 교수)가 직접 쓴 깊이 있는 작품 해설!
- 우리나라 대표 시인과 소설가가 원전에 충실하면서도 쉽고 재미있게 쓴 대표 고전문학 작품!



- 1 홍길동전
- 2 춘향전
- 3 사씨남정기
- 4 양반전 외

- 5 심청전 근간
- 6 전우치전 근간
- 7 장화홍련전 근간
- 8 허생전 근간

- 9 흥부전 근간
- 10 별주부전 근간
- 11 용고집전 근간
- 12 박씨전 근간

- 13 금오신화 근간
- 14 구운몽 근간
- 15 금방울전 근간

전원호 외 글 | 최정인 외 그림 | 172쪽 내외 | 각권 9,500원

·〈한국 고전문학 읽기〉시리즈는 계속 출간됩니다.
·출간 순서는 바뀔 수 있습니다.

인성의 기초를 잡아주는 처음 인문학동화 ❶ 《공자 아저씨네 뺑가게》 독후활동지
1판 1쇄 발행 | 2012. 5. 2.

발행처 김경사 | 발행인 박은주 | 편집인 박숙정 | 구성 강승임
등록번호 제 406-2003-036호 등록일자 1979. 5. 17. 주소 경기도 파주시 문발동 파주출판단지 515-1(우413-756)

출판사의 허락 없이 내용의 일부를 인용하거나 발제하는 것을 금합니다.

독자의견전화 031-955-3139 | 전자우편 book@gimmyoung.com | 홈페이지 www.gimmyoungjr.com | 어린이들의 책놀이터 cale.naver.com/gimmyoungjr